

IT/전기전자

박강호
서지원RAkangho.park@daishin.com
jwon0.seo@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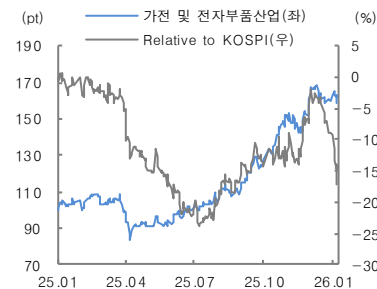
투자 의견

Overweight

비중확대, 유지

Rating & Target

추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1	25.0	59.4	51.4
상대수익률	-14.3	-3.3	8.9	-16.8

쓸림은 심화,
실적 차별화에 주목

- 메모리 가격 상승과 환율 효과로 반도체 업종 실적 상향 본격화
- CES 2026 통해 AI가 피지컬 AI로 진화하며 로봇틱스 양산 국면 진입 가시화
- LG전자 4Q25 부진하나 포트폴리오 변화로 밸류에이션 상향 기대

삼성전자의 4Q25 영업이익은 20조원, 역대 최고로 2026년 실적 상향

2026년 1월 첫째주(1/05~09),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주가는 각각 8.2%, 9.9%, 9.4%씩 상승하였다. 4Q25 영업이익은 종전 컨센서스대비 빠르게 상승하여 2026년 큰 폭의 증가가 예상, 실적 상황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4Q25 영업이익(잠정)은 20조원을 기록, 3Q에 12.2조원대비 64.3%(qoq) 증가하였다. 메모리, 즉 범용 디램의 가격 상승이 추정을 상회, 환율(원달러) 상승의 요인도 긍정적으로 반영되었다. 마이크론의 종전 실적 가이드선도 상향될 가능성이 2026년 반도체 호황의 가시성을 높여주었다.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범용 디램의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2026년 상반기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실적 상향에 주목한 반도체 중심의 비중확대, 대형주 중심의 전략을 유지한다. 메모리가격 상승(원가부담 가중, 판매가격으로 상쇄 어려움)으로 2026년 IT 기기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적 상황이 증명된 반도체가 대안으로 평가된다.

CES2026 특징은 AI 산업은 피지컬 AI로 진화, 산업별 로봇틱스 및 자율주행에 대응한 진출, 양산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젠슨황(엔비디아 CEO)은 AI 플랫폼 루빈을 공개,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AV)개발을 위한 개방형 추론 모델 제품인 알파마요도 소개하였다. 엔비디아는 피지컬AI가 진화된 자율주행의 로봇틱스 그리고 로봇틱스(휴머노이드) 분야에도 반도체, 솔루션을 제공한다 측면에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엔비디아가 테크기업과 협력을 다각화, 성장의 주도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PCB : 실적 호조중심으로 집중

반도체 PCB 업체 중심으로 주가의 약세,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주요 원자재인 금, 구리 가격 상승이 진행되면서 원가부담 가중, 수익성 둔화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2026년 1Q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원자재 상승이 마진을 축소로 연결, 1분기 실적 둔화 우려는 존재한다. 그러나 2023년 대비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높으며, 전체 고정비를 커버하는 매출 유지는 가능하여 급격한 수익성 축소의 가능성이 적다.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은 코리아씨티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LG전자:4Q25 부진하나 1Q26 실적 개선에 주목

LG전자의 2025년 4Q 영업이익(연결)은 -1.094억원으로 추정(+210억원), 컨센서스(-84억원)대비 하회 및 부진하였다. LG전자(별도)만의 영업이익은 -4,511억원으로 적자전환(qoq/적지 yoy)이나 2026년 도약을 위한 선제적인 효율성 제고 비용이 반영되면서 부진하였다. 배경은 ① 4Q가 비수기인 동시에 ② 전사적 인력 효율화 진행(희망 퇴직 등) 3) CEO 교체로 추가적인 비용(적극적인 재고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6년 1Q 실적 회복, 휴머노이드 등 로봇사업의 확대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변화로 밸류에이션 상향의 가능성을 기대할 시점이다. 2026년 1Q 영업이익(연결)은 1.37조원(별도 1.25조원 9.9% yoy)으로 8.9%(yoy/흑전 qoq) 증가 등 실적 개선을 예상한다.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박강호)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관련사항]

산업 투자 의견	기업 투자 의견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자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Buy(매수):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상승 예상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자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10%p 추가 변동 예상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자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향후 6개월간 시장수익률 대비 10%p 이상 추가 하락 예상

[투자 의견 비율공시]

구분	Buy(매수)	Marketperform(중립)	Underperform(매도)
비율	88.5%	11.5%	0.0%

(기준일자: 20260107)